

# 보 도 자 료

(주소) 16614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화) 031-231-7200 (팩스) 031-236-0283

2024. 12. 26.(배포)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작가로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앙 3팀 선정	5쪽	있음	www.ggcf.kr	부서 : 예술지원팀 담당 : 이지희 전화 : 031-231-7233

## 경기문화재단, 《2024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작가로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앙 3팀 선정

### ▶ 시각예술 분야 경기 중견작가의 신작 창작활동 지원 및 작품세계 집중조명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2024 경기 시각예술 집중조명》 작가로 김나영&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최수앙 3팀을 선정했다. 재단은 매년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괄목할 만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 중견작가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시를 통해 그동안 구축해 온 작업 세계를 조명하고 그 예술적 성과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추천위원회(고운정, 고충환, 백기영, 신은영, 안진국)로부터 추천을 받은 14명의 중견작가가 후보에 올랐으며, 이준희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심의위원은 각 후보의 예술성 및 역량, 경기도 지역예술 및 현대미술계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단은 향후 경기지역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작가에 주목하며, 중견작가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보이면서도 동시대적인 맥락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 접근을 이어오고 있는 3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는 예술적 표현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역량을 지닌 예술가 듀오로, 작품세계에서 상투적인 것들과 고급 예술이, 과거와 현재가, 동·서양의 문화적 산물들과 지식, 취향 등이 얹힌 창의적이고 다층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들은 2004년부터 꾸준히 공동작업을 이어오며, 한국과 유럽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계에서 독창적인 자리를 다져왔다. 사물의 기호에 집중하며 일상 속 오브제를 낚설고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해 선보이는 이들의 작업은 의도된 완결성에서 벗어나 관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된다. 현재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paranoia Paradise)》를 통해 60점에 달하는 신작을 선보이며, 이들이 다져온 예술적 정체성과 그 발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박혜수는 200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와 집단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와 무의식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나아가 개인의 기억과 삶의 가치를 가시화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무형의 가치들을 시각화하기 위해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의문을 품고 관찰하며 촘촘한 조사와 채집, 전문가 협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르로 귀결된 작업들에서 작가는 관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일상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란다. 금호영아티스트(2011)와 송은미술대상전 대상을 수상하고(2013), 2019년 올해의작가상 후보로 올랐다.

최수양은 2000년대 초반부터 대상의 재현과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인체 조각의 틀을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안에서 야기되는 감정의 서사를 형상과 감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2016년 이후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재와 감응하며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매개로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동시대 미술에서 조각이라는 매체의 다양한 가능성과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평면, 설치, 영상, 협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성곡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선정된 3팀에게는 창작지원금 2천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견작가로서 그간 구축해 온 작업 세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 또한 신작을 포함한 주요 작업은 25년도 하반기 경기도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붙임 1** 선정 작가 프로필 사진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박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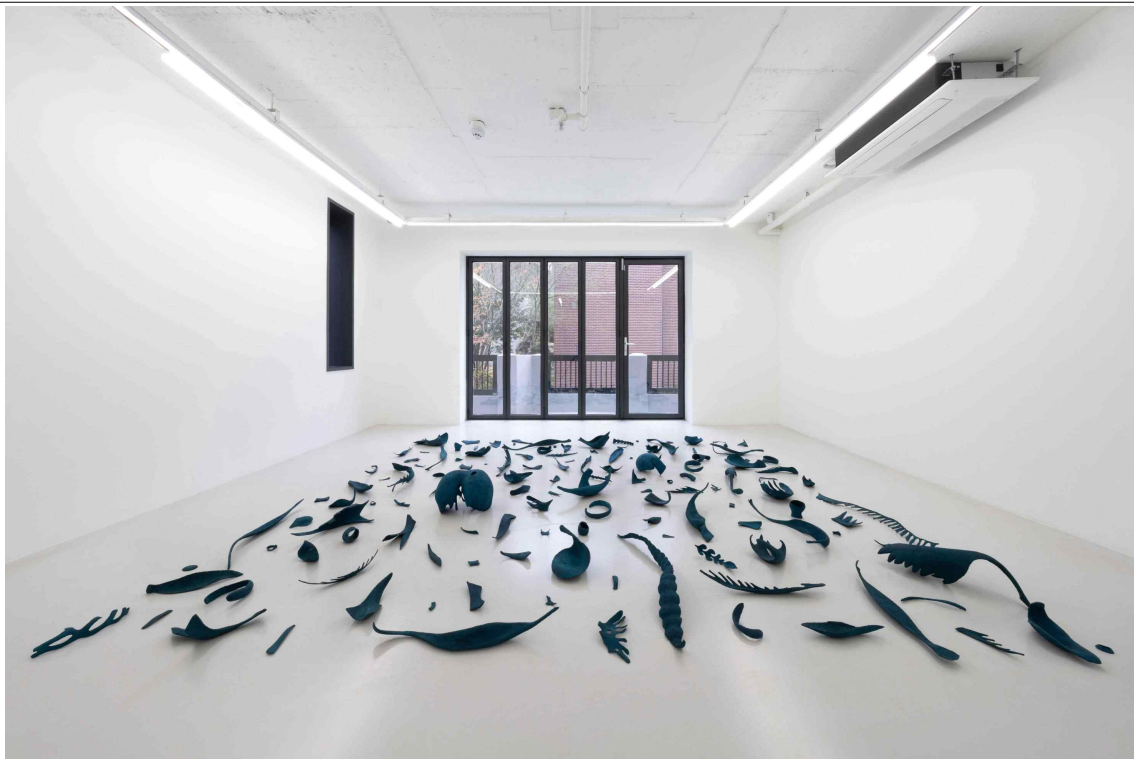
최수앙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아미타불>  
도자, 목재, 혼합매체, 22 × 15 × 68 cm, 2024



박혜수 <나라 없는 사람>  
사운드, 스피커, 스틸모빌, 분쇄화폐(한국은행 후원), 거울, 수동복권기계, 가변크기,  
샤르자비엔날레 커미션, 2023



최수앙 <BluePrint>  
페이퍼마쉬, 안료, 알루미늄 메쉬, 스테인레스 스틸, 가변설치, 2022